



지난 5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공연 '인생'을 앞두고 리허설을 진행하는 채승웅 씨의 모습.

“샌드아트로 ‘오월 광주’ 표현하고 싶어”

모래라는 붓을 이용해 한쪽의 수채화를 그리는 것 같았다. 주먹을 쥐락펴락하자 고운 입자들은 라이트 박스 위로 흘러 내렸고 이내 정교한 눈동자와 머리카락 등을 만들어 냈다.

지난 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 샌드아티스트 채승웅이 출연한 '인생'은 흥미롭고 이색적이었다. 샌드아트와 오케스트라, 성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희로애락'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 맞춰 펼쳐졌다. 기억을 잃었던 한 남자가 점차 가족과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내용을 클래식, 성악으로 표현한 것.

서사와 맞물려 샌드아티스트 채승웅 씨가 즉석에서 표현한 '모래 그림'은 음악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샌드아트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장르라고 봅니다. 붓이나 연필 등으로 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죠. 샌드아트에서 중요한 요소는 순발력과 상상력인 것 같아요, 대학(중앙대 문예창작과)에서 '소설 창작'을 전공했던 이력도 도움이 됐죠”

채 씨는 중국 태원 샌드아트 경연대회 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십 회 공연했으며, 5·18을 모래로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어볼 만큼 광주에 대한 애착도 크다.

“인생” 공연 마친 ‘샌드아티스트’ 채승웅

쌓았다 무너지는 ‘모래의 미학’ ‘음악적 시각화’로 그림 재미 더해 한붓 그리기 등 새로운 작법 관심 한 작품당 3~5분...영상으로 남겨

그는 최근 아이스크림 스푼, 종이컵 등 이색적인 도구로 모래를 떨어뜨리거나 ‘한 붓 그리기’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작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샌드아트의 외연을 확장해 대중과 SNS로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가 모래로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데 드는 시간은 3~5분이면 충분했다. 작업이 끝나면 영상, 사진으로 작품을 남긴다. 이어 바로 모래로 작품을 덮어 다른 그림의 토대가 되게 한다.

완성작을 부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채 씨는 “이합집산일 뿐이다. 모래들을 모았다 흐트러트리는 것은 바로 샌드아트의 매력인 것 같다. ‘영속성’ 없는 순간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작품들은 모래를 고정시키거나, 사진이

나 영상물로 남겨 SNS에 영구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그에게서 직접 도형, 선묘법, 인물 표현 등 샌드아트의 기초를 배워보았다. 순식간에 학, 인물, 설산 등을 표현하는 모습이 얼핏 ‘해볼만 하다’고 느껴졌지만, 막상 모래를 쥐니 손끝의 감각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보였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는 주인공의 서사와 맞물린 클래식 음악들도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서곡으로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25번 G단조’, 슈만 곡 ‘피아노 사중주 47번 E플랫 장조’가 관객들을 만났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 가곡 ‘첫사랑’과 ‘얼굴’은 고규남(테너), 박수연(소프라노) 등이 불렀다.

올해 탄생 150주기를 맞은 라흐마니노프의 ‘꿈’, 차이코프스키 ‘당신을 사랑합니다’도 들을 수 있었다. ‘시간에 기대어’, ‘인생’은 클라비레 연주단과 윤병길 테너가 불렀으며 포레의 ‘꿈 꾸고 난 후’, 쇼팽 ‘녹턴’, 토스티 ‘새벽은 빛으로부터’도 레퍼토리에 있었다. 예술감독에 전남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윤하나.

“흥거는 세상사를 표현하기에 모래가 제격인 것 같아요. 앞으로 광주의 5월과 민중항쟁사, 상흔 등을 모래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여전히 광주를 지탱하고 있는 살아 있는 민주정신을 모래로 형상화해보고 싶습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클래식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창단연주회) 공연 장면. <K클래식앙상블 제공>

경쾌한 춤곡 ‘건반무도회’

K클래식앙상블 정기연주회, 1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지역에서 클래식을 연주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창단한 앙상블이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K클래식앙상블(회장 고선희)이 제2회 정기연주회 ‘건반무도회’를 오는 10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공연은 낭만음악의 거장 브람스를 비롯해 현대음악의 한 축을 맡는 울스 등의 곡을 연주한다. 특히 ‘춤곡’을 연주해 연말연시의 무도회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브람스의 ‘헝가리안 춤곡 2번’은 고선희, 이민진,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왈츠’는 최원영, 송지혜가 연주한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곡 17번’은 정지연, 백승유가 들려주며 이지영, 설효선 등은 리스트의 ‘Gounod Faust Waltz’로 관객들을 만난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도 감상할 수 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즐기는 누에보 탱고

(Nuevo Tango, 새로운 탱고)를 상징하는 곡으로 평가받을 만큼 60~70년대 고전 탱고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선사한 작품이다. 조플린의 ‘래그 탭소디’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해설은 광주대 예대를 졸업하고 전문연주자 및 공연기획,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이 맡는다.

한편 K클래식앙상블은 전남대, 조선대, 호신대 등을 졸업한 지역 출신의 음악가들이 모여 만든 앙상블이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대, 명지대 등에서 수확한 이지영이 대표.

이번 공연의 해설을 맡은 최원영은 “‘춤곡’이 주는 경쾌한 연말 파티 분위기를 피아노 두대를 통해 즐기는 공연”이라며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 입문자라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나, 함께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초대. /최류빈 기자 rubi@

제1회 양두환 전국조각공모전 대상에 박현우 ‘소리의 울림’

진도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양두환 조각가를 기리기 위한 제1회 양두환 전국조각공모전 대상에 박현우 작가의 ‘소리의 울림’이 선정됐다. 상금 1000만원.

진도 여귀산 미술관(관장 노정자)에서는 양두환 조각가를 알리고 지역 조각발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상은 정진영 작가의 ‘시간을 짊어 가는 여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상금은 500만원.

이번 심사는 박정용(전남대), 박정흥(군산대), 이지엽(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진도 출신 양두환은 지난 1971년 ‘풍요’, 1972년 ‘상항72’로 대상 없는 국무총리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이른 나이에 조선대 교수로 임용됐으나 안타깝게 3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대상작 ‘소리의 울림’은 첼로를 형상화한 철을 활용한 작품이다. 소리의 형상을 매개로 화평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밝은 색상과 미세한 선의 조화는 금방이라도 소리를 울릴 듯한 사실감을 더해준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 작품은 은행나무로 조각한 작품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양각과 음악의 조화가 뛰어나다. 특히 볼륨감 있게 묘사된 얼굴과 손의 부분들이 잘 어울려 균형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정자 관장은 “이번 공모전은 사립박물관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각 발전



박현우 작 ‘소리의 울림’

을 위해 마련했다”며 “양두환 조각가 이름에 걸맞는 좋은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엇이 묻혀있는지도 모른 채’

이선미 개인전, 10일까지 남동 아크갤러리

그의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은유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지만 그렇다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작가의 심미안이 투영된 사물이나 대상은 작가만의 해석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다.

이선미 작가의 개인전이 동구 남동 아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무엇이 묻혀있는지도 모른 채’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보는 이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마치 화두와도 같다. 작품 하나하나를 결코 가볍게 스칠 수 없는 아우라를 발한다.

노동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비롯해 작업화 위에 앉은 달팽이 등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객체들이다. 그런 사소한 사물이나 생명체에 눈길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내면이 따뜻하다는 방증이다.

‘끈끈하다 못해 끈적이는 땅’에서는 달팽이와 다양한 사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한 가운데 달팽이가 있

고 그 주위로 알 수 없는 사물들이 에둘러 있다. 달팽이는 과연 자리한 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물질과 욕망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무언의 경고를 담은 작품도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은 끊임없이 분무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일련된 물 쓰듯 물을 허비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분무기를 들고선 이의 모습은 초라한 차림의 어르신이다. 전체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후줄근한 뒷모습을 초점화한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의 2023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일궈낸 인위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며 “인간의 욕심으로 일궈낸 풍경들을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뒤에 감춰지고 버



‘끈끈하다 못해 끈적이는 땅’

려진 본질의 존재들을 재조명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작가는 원광대 한국화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신세계갤러리 신년 기획전을 비롯해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의 2016년 레지던시 창년작가 지원 전시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